

오늘의 기사판

행사 (4일) ▲제 7회 광주정신지체인 복지대회=오전 9시50분 광주장애인 종합복지관. ▲제 11회 전남도 여성주간 기념식=오후 1시 30분 광양시 문화회관. ▲광주 여성단체회장 개관식=오전 11시 광주여성단체회관. ▲광주조각미술관 개관식=오전 11시 30분 광주시청 민원홀. ▲소화차매원 설립 50주년 기념 장애인 인권행복세미나=오후 2시 광주시 남구 종합문화회관. ▲대촌 중앙 노인대학 한글교실 개강식=오후 2시 광주시 남구 자석동 중앙교회. ▲순천 평생학습 배달 강좌=오후 4시 순천대 우석홀. ▲목포시 해안선 구간 경관조형 디자인 개선사업 추진보고회=오후 2시 목포시청 상합실. ▲버섯 연구소 기본계획 용역 최종보고회=오

제 7회 광주정신지체인 복지대회

오전 9시50분 광주장애인 종합복지관 후 2시 장흥군청 상합실. ▲소 부루세라병 방역보안대책 교육 및 가족방역협의회 개최=오후 3시 장흥 군민회관 소회의실. ▲찾아가는 영화 상영=오후 8시 담양군 월산도개마을. ▲2006년 여름철 현장 친환경 영농기술 교육=오후 2시 담양군 창평면. ▲화순 천운농협 조합장 시뮬 축구 결의대회=오전 7시30분부터 농협 화순군지부 앞 인도. (5일) ▲제 2회 장흥 땀길 호박축세 개막행사=오전 11시30분 장흥군 화기면 진북리 진북마을 9일 까지. ▲우리음식연구회 생약초 이용 요리과제 발표=오후 1시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인교육관. ▲2006 청소년 정신보건 세미나 '청소년과 사이버문화'=오후 2시 전남대 융복합관 4층. ▲곡물건조기 기능성정제를 위한 설명회=오후 2



시 장흥 군민회관 소회의실. ▲수북 농협장 선거=담양군 수북농협 회의실. ▲광주 5일 금연학교=오후 7시~9시 한국금연교육협의회 금연교실, 7일까지, 062-653-9210 ▲김중현&남국옥본 자선콘서트=4일(화)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남도소리상설무대 '이난초 흥보가'원창무대=5일(수) 오후 6시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물빛 수채화전=5일까지 무등갤러리 신관, 수채화가들의 그림전. ▲한국서예협회 광주시지회전=15일까지, 자미갤러리, 광주북구청 갤러리. ▲조선왕실의 가마전=30일까지 목포 국립해양 유물전시관. 왕실에서 사용했던 가마전시. ▲지산갤러리 기획전 '정재형 초대전'=5일까지



지산갤러리. ▲대학미전=26일까지 롯데호텔. ▲H-MAX 정기 회원전=5일까지 일곡갤러리. ▲올해의 작가 '윤애근·정승규'전=16일까지 광주 시립미술관 본관 1층, 로비.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용 명예관장이 기획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역사속의 오늘

- ▲미국 독립선언(1776) ▲미국 소설가 호튼 태어남(1804) ▲이탈리아 통일운동의 지도자 주세페 가리발디 태어남(1807) ▲미국 3대 대통령 제퍼슨 세상 떠남(1826) ▲폴란드 출신의 물리학자 퀴리 부인 세상 떠남(1934) ▲필리핀, 공화국 수립 선언(1946) ▲남북공동성명,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1972) ▲경제기획원, 제6차 경제사회발전5개년개발안 발표(1985)

뉴스퀴즈

19. 거스 허딩크와 딕 아드보르트 감독의 뒤를 잇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사령탑이 새로 임명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현 대표팀 수석 코치를 계약 기간 2년의 신임 감독으로 임명했는데, 그는 지난 2002년에도 수석 코치로 허딩크 감독을 도와 한국을 2002 한일 월드컵 4강으로 이끌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 출신인 이 감독은 누구일까요? ① 필 베어벡 ② 이비차 오심 ③ �벤 에란 에릭손 ④ 레몽 도메네크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the 12 zodiac signs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s for July 4th (6th day of the 6th lunar month, Monday). Each row includes the sign name, a short fortune prediction, and the lucky number.

I love MY student 김수우 <삼향초등학교 교사>

운동회 때 합주에 맞추어 행진하기 위해 4학년 45명의 어린이들을 데리고 합주 연습을 시작했다. 다른 도시 학교처럼 음악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몇 안 되어 멜로디언이나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학생들에게 기초적인 손가락 운지법부터 개별 지도하느라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이 놀랐다. 합주에 싫증을 내고 힘들어 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은 나의 큰

꽃들의 행진곡 오산이었다. 유난히 작은 체구를 가진 여학생들이 무거운 아코디언을 메고 공대면서도 힘닿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오히려 서로 해 보겠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힘겨워 보이는 큰 북을 어깨에 메고 땅을 울리는 모습을 보면 미안한 마음 그치지않지만 웃으며 견디어 주는 아이들이 내에게는 큰 사랑으로 다가왔다. 어느덧 아이들은 음악과 하나 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 냈다. 자신들도 음악에 푹 빠져 리듬을 온 몸으로 표현하는 모습은 마치 작은 '난타' 공연을 하는 것 같았고 주위사람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주기 충분했다. 다은 증후군이 한 아이는 행진곡 리듬치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계속된 반복으로 쉬운 박자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맞춰 트라이앵글

15회 광일소 (광주, 전남, 전북, 경북, 경남) 한국 바둑의 대부이자 개척자인 조남철 선생이 속환으로 지난 2일 타계했다. 향년 83세. 선생이 아니었으면 현재의 한국 바둑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불모지인 한국에 바둑을 일으켜 바둑인구의 저변을 1천만명까지 확대했고 한국 바둑을 세계 최강으로 이끌었다. 선생의 공로는 바둑계에 영원히 빛날 것이다. 선생의 명복을 빌다. 이 바둑은 신·구 아마강호들의 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한판이었다. 결과는 이강민 5단의 판정승으로 끝났

바둑소식 이창호 9단, 박영훈 9단 9월 3일 한국기원 본선대국실에서 열린 제11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본선리전에서 박영훈 9단을 꺾고 2연승을 거뒀다. 이 9단은 모두 7판의 대국 가운데 3국까지 소화한 현재 리그 성적 2승1패를 기록중이다. 이 9단은 첫 대국에서 패한 뒤 박정상 7단과 박영훈 9단을 잇따라 꺾고 삼승세를 타고 있다. 이 9단은 10회 대회에서 최철한 9단에 패해 준우승에 그쳤다. 대회 총 상금 규모는 3억2천만원이며, 우승 상금은 5천만원(준우승 1천200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자 3시간이며,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Three language learning panels: 1. 'Now where were we?' (English) - A: Take the clothes out from the washing machine and put them in the drier, OK? B: All right, Mom. A: Now where were we? B: We were talking about who we should invite to the ceremony. 2. 'どこでもすわる症候群(しょうこうぐん) / 어디라도 앉는 증후군' (Japanese) - A: この頃(ごろ)どこでもすわる若者が(ふ)増えてきていませんか。 B: そういう人を 'どこでもすわる症候群(しょうこうぐん)'と言うんだそうです。 A: なんか、気の抜(ぬ)けたような 格好(かっこう)して、疲(つか)れているんですね。 B: 地(じ)べたに座(すわ)りこんでいるので 'ジベタリアン'とも呼(よ)ぶんですって。 A: 요즘 어디라도 앉는 젊은이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B: 그래요. 그런 사람을 '어디라도 앉는 증후군'이라고 한다고 해요. A: 뭔가 기운 빠진 듯한 모습을 하고~, 피곤한 것일까요? B: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지베타리안'이라고도 부른다고 해요. 3. '请你快一点, 好嘛? / 좀 빨리 가 주세요?' (Chinese) - A: 请你快一点, 好嘛? 我要回家。 B: 你别着急, 慢慢来。 C: 请问, 这里怎么走? D: 请跟我来。 E: 谢谢! F: 再见! G: 祝你一路顺风! H: 祝你玩得开心!